



석우 스님의  
조주록 선해

### 평범한 말 속에 은밀한 뜻있다

학승이 물었다.  
“개에게 불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조주 스님이 말했다.  
“집집마다 문 앞은 장안(서울)으로 통하고 있어.”

問 狗子還有佛性也無 師云 家家門前通長安

본 <조주록> 132번째에 한번 나온 질문이다. 부처님이나 옛 조사 스님들은 움직일 줄 아는 자는 다 불성이 있다고 했다. 그렇다면 불성(佛性), 즉 부처의 성품이 누구에게나 있다고 한다면 과연 개도 불성이 있을까? 이것이 이 질문의 요지였다. 이 질문에 대해 조주 선사는 ‘없다[無]’고 잘라서 말했다. 비록 축생의 업시성이 강하다고 해도 성품은 변함없는 불성일 것인데, 왜 없다고 대답한 것일까? 이것이 화두가 되었다.

그런데, 같은 질문에 이번 답변은 불성을 인정하고 있다. ‘문 앞의 길은 장안으로 통한다’는 말은 곧 축생도 당연히 불성이 있다는 의미인 것이다. 이처럼 여기서는 개의 불성을 인정하고, 앞의 132문에서는 왜 개의 불성이 없다고 했을까? 이것에 대해서 본 남자가 한 마디로 평을 하자면, 이것이 바로 조주 스님의 정확한 가풍이라고 하겠다.

학승이 물었다.  
“눈앞에 내놓습니다. 이것이 대의(大意)를 다 보인 것입니까?”

조주 스님이 말했다. “저구(低口)!”  
학승이 말했다. “거두어들여도 얻지 못할 때는 어떻게 됩니까?”  
조주 스님이 말했다. “자네에게 저구(低口)라고 말했네.”

問 觀面相呈 還盡大意也無 師云 低口 云收不得處如何 師云 向你道低口

저구(低口)란 ‘입이 바닥에 붙었다’ ‘입이 낮아 졌다’는 뜻이다. ‘할 말이 없어’라는 뜻이다. 고난도의 선문답이다. ‘눈앞에 내놓습니다’라는 말을 했을 때 분명 도(道)를 들어내 보인 것이 있다. 그렇다면 이것으로 도를 다 들어낸 것인가? 이에 대해 조주 스님은 가타부타 뭐라고 말이 없었다.

도가 밖으로 나왔다면, 그것을 도로 거두어들일 수도 있을 것이다. 설사 거두어들인다 해도 절대 얻지 못한다고 말한다면 이에 대해서 선사는 어떻게 생각할까? 조주 선사는 이에 대해서도 말이 없었다. 왜 조주 스님은 말이 없었는가?

조주 스님의 저구에 대해 본 남자가 평을 한다면, “조주 스님은 절대 밥을 굶지 않는다고 하겠다.” 제방의 남자들이여, 조주 선사가 왜 입을 닫았는지 한번 일러보라.

학승이 물었다. “무엇이 눈앞의 일구(目前一句)입니까?”  
조주 스님이 말했다. “나는 자네와 같지 않아.”

問 如何是目前一句 師云 老僧不如你

선객들은 대개 선사가 한 마디 던지는 목전일구에서 깨달음을 얻는다. 많은 말을 싫어하고 조촐한 한 마디를 톡 던질 뿐, 더 이상 말을 하지 않는 선사들의 목전일구는 그만큼 매우 함축적인 의미가 들어있다. 예를 들어, 저 앞에서 나온 330문 자가본의(自家本意)에 대한 질문에서 학승이 “무엇이 자가본의입니까(如何是自家本意)?”하고 묻는 말에 조주 스님은 “노승은 소 잡는 칼 따위는 쓰지 않아(老僧不用剪刀).”라고 한 마디 던졌는데, 이 목전일구는 사실 대단한 의미가 들어있다. 옛 선사의 품위를 손상시키지 않았고, 또 자기의 얼굴에도 먹칠하지 않는 기막힌 한 마디이다. 도가 무르익는 남자라면 이 한 마디에 최후의 알을 깨고 나오게 된다.

그런데 이번 학승은 목전일구에 대해 직접 물었다. 조주 스님 또한 대수롭지 않게 한 마디를 던졌는데, “나는 자네와 같지 않아.”라는 말이다. 언뜻 들으면 평범한 말 같지만, 여기서도 선적 의미가 없는 것이 아니다. 겉으로 들어난 뜻은 당연한 말이다. 질문하는 자가 대답하는 자가 다르고, 선사와 객승이 다르고, 도의 경계가 다르고, 노승과 청년 승이 다르다. 당연한 말이다. 그러나 이 속에 깊은 뜻이 있다. 길 조심해라, 밥 먹을 때 흘리지 마라, 상관이 되어도 겸손해라, 인간은 누구나 붓다이다, 문단속 잘해라 등등의 평범한 말들 속에 은밀한 뜻이 있다. 남자들은 그것이 무엇인지 알겠는가? **무불선원 선원장**

김호성 교수의  
에세이 경구 ㉔



### 어떤 때는 장자가 보시한 훌륭한 법의를 입기도 합니다 (맛지마 니카야 77)

우리 사는 세상, 모두가 잘 살면 참 좋겠는데 그렇게는 안 되는 모양이다. 가난한 사람은 가난하고, 부자는 부유하다. 누군가 달라이라마 스님께 여쭙었다 한다. “이 세상에 경제적 양극화는 없을 수 없는 것일까요?” 이에 대한 스님의 대답은 “없을 수 없다”는 것이었다.

이 양극화는 저 옛날, 산업혁명 이후 영국에서는 아예 ‘두 개의 나라(two nations)’라고 표현할 정도였으니, 그 심각함을 간접적으로나마 느낄 수 있게 된다. 빈익빈 부익부의 문제는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계속될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불교는 이러한 양극화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좋을 까? 이 화두를 풀어나가는 데 도움이 될 말씀을 부처님께서 이미 제시해 두고 있었음을 나는 발견했다.

어느 때 부처님의 제자들은 두 그룹으로 나뉘어서 논쟁을 벌였다. 부처님께서 탁발을 할 때에는 가난한 사람들에게만 밥을 빌어야 한다는 주장과 부자들에게만 밥을 빌어야 한다는 주장이 대립했다. 전자의 입장은 가난한 자들에 복을 지을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내세의 부유함을 기약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것이었고, 후자의 입장은 가난한 자들에게 보시까지 하라는 것은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것이니 부자에게만 밥을 빌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둘 다 자비로운 마음에서 나온 주장이었다. 부처님은 가난한 자, 부자를 구별하지 말고 차례대로 일곱 집만을 방문하여 밥을 빌어라고 판결하셨다. 이른바 칠가식(七家食)이다.

이와 같은 맥락의 이야기가 <맛지마 니카야>에서도 등장한다. 방랑수행자들이 모여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 중에 부처님이 제자들로부터 존경을 받는 이유 다섯가지를 말하고 있었다. 그 중에 하나: “부처님은 어떤 법이라도 만족하며 어떤 법이라도 만족하는 것을 칭찬합니다.”

나머지 네가지도 모두 이러한 두타행(頭陀行, 고행)에 관한 것이었다. 그렇다. 부처님께서 어떤 법이라도 만족하며 어떤 법이라도 만족하는 것을 칭찬 하였음은 분명한 일일 터이다.

그러나 부처님께서, 놀랄게도, 이러한 입장에 대해서 반대의견을 제시하는

것이 아닌가. “그러나 나는 어떤 때에는 장자가 보시한 훌륭한 법의를 입기도 합니다.”(일야 편역, <한 권으로 읽는 빠알리 경전>, 민족사, 154쪽) 장자(長者)는 물질적으로 부유하면서, 그 부유함을 널리 나누고 베푸는 분을 높여서 부르

는 존칭이다. 왜 부처님께서 이러한 말씀을 하셨던 것일까? 방랑수행자들의 관점이 반드시 틀렸기 때문이 아니라는 점은 물론이다. “그러나”라는 말은 “그래도 당 신들이 말하는 것처럼 나는 어떤 법이라도 만족하며 어떤 법이라도 만족하는 것을 칭찬한다. 그러나 ---”라는 문맥



행복하게 해주시고 감사  
그림 · 박구원

인 것이다. 다만 그렇게만 말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그들이 그렇게 말하는 데에는 하나의 고정관념(相)이 놓여있다. 진정한 수행자라면 언제나 가난한 자들만을 위해서 살아야 한다는 생각 말이다. 그래서 안 된다는 점이다. 그렇다고 해서, 부처님의 입장이 언제나 부자들만을 위해서 사는 것만이 진정한 수행자라고 말하는 것이 아님도 두 말할 나위가 없다.

부처님께서 말하고 싶었던 것은, 미리부터 어떤 사안이든지 언제나 하나의 입장(=어느 편)의 입장을 정해두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닐까. 부처님은 분소의(糞掃衣)와 같은 험한 옷도 입으셨지만, 어떤 때에는 장자가 보시하는 훌륭한 법의 역시 입으셨다. 물질적으로나 이념적으로나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는 오늘날, 어느 한 편에만 고정되기를 거부하셨던 부처님의 크나큰 자유는 우리들에게도 어느 한편에만 고정되지 말라는 메시지를 전한 것이 아닐까. **동국대 불교학부 교수**



주성원의  
기초 교리 <18>

### 삼학-①계학(戒學)

계·정·혜 삼학(三學)은 대소승의 여러 불교종파마다 내용상 조금씩 차이를 보이는 부분은 있지만, 부처님이 설한 수행체계 분류법으로서의 권위에는 이견이 없다. 중요한 것은 이 삼학의 체계가 불교의 독자적인 수행체계라는 점이다.

인도의 사상 속에 인간의 내면과 신체를 닦는 수행체계는 고대 인더스 문명으로 거슬러 올라갈 정도로 유구한 역사를 지니고 있다. 따라서 불교가 생기기 이전에 존재했던 인도의 여러 종교단체들도 나름의 수행체계를 가지고 있었고, 서로 유사한 점도 많아 구분이 모호한 경우도 많았다. 하지만 불교의 삼학 체계는 다른 인도의 종교, 즉 외도(外道)들의 수행체계와 구분 짓는 불교만의 수행체계이다. 이는 <유가사지론(瑜伽師地論)> ‘성문지(聲聞地)’ 등에 ‘불교에만 있고, 외도에게는 없는 수행법’이라고 명기되어 있는 것만 보아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불자라면 삼학에 관련된 내용을 어느 정도 숙지할 필요가 있다.

먼저 삼학의 첫 번째인 계학을 살펴보기로 하자. <법구경(法句經)> ‘불타품제오계(佛陀品第五偈)’에 ‘모든 악한 행위를 하지 말고, 선을 받들어 행하며, 자신의 마음을 스스로 청정히 하는 것, 이것이 모든 부처님의 가르침이다’라는 내

용이 나온다. 이 계승에서 말하고 있는 ‘악행을 저지르지 않고[諸惡莫作], 선을 행하며[衆善奉行], 마음을 청정히 하는 것[自淨其意]’이 바로 계의 가장 기본적인 자세이다.

소승불교, 즉 부파불교에서 정의하는 계에서는 ‘악을 멈추는 계’로써 지악계(止惡戒)를 들고 있다. 지악계는 크게 번뇌가 남아있는 상태에서 지켜야 할 유루계(有漏戒)와 번뇌가 없는 상태에서 지켜야 할 무루계(無漏戒)로 나뉜다. 유루와 무루의 루(漏)는 마치 물이 새나오는 것처럼 번뇌가 끊임없이 흘러나오는 상태를 말하며 유루는 이러한 번뇌가 있는 상태, 무루는 번뇌가 없는 상태를 말한다. 즉 유루계는 세속에서 살아가는 중생들이 지켜야 할 세간적인 계이고, 무루계는 번뇌가 멸한 깨달음을 얻은 자가 지켜야 할 출세간적인 계를 말한다.

여기서 유루계는 다시 욕계(欲界)에서 지켜야 할 계와 색계(色界)에서 지켜야 할 계로 나뉜다. 욕계는 욕망을 가진 중생들이 사는 세계를 말하며, 욕계에서 지켜야 할 계는 다시 재가계와 출가계로 나뉜다. 재가계는 재가자들이 지켜야 할 계로 오계와 팔계(八齋戒)를 말하고, 출가계는 비구가 지켜야 할 250계, 비구니가 지켜야 할 348계, 사미·사미니가 지켜야 할 10계, 정학녀(正學女)가 지켜야 할 율법계를 말한다.

색계는 욕계보다 한 단계 위의 세계로 감각적인 욕구는 사라졌지만, 욕계 등과 같은 물질이 남아있는 세계를 말한다. 욕계에서 벗어나 색계에 머물기 위해서는 사선정(四禪定)을 닦아야 하는데, 색계에서 지켜야 할 계가 바로 사선정 수행 중 지켜야 할 계를 말한다. 이를 다른 말로 정공계(定共戒)라고도 한다.

대승불교 시대에 들어오면 계가 악을 멈추고, 선을 행하는 것만이 아닌 남을 위한 이타적인 면도 강조된다. 이를 삼취정계(三聚淨界)라고 한다. 삼취정계는 다시 삼품의계(攝律儀戒)·삼선법계(攝善法戒)·삼중생계(攝衆生戒)로 나뉜다. 이는 각각 악을 멈추는 지악문(止惡門), 선을 닦는 수선문(修善門), 선을 권하는 권선문(勸善門)으로 부르기도 한다.

이 중 첫 번째 삼품의계는 부처님이 제정한 계를 지켜 그릇됨을 막고 일체의 악을 끊어버리는 것으로 10가지 무거운 계율[十重禁戒]과 48가지의 가벼운 계율[四十八輕戒]을 지켜, 일체의 악을 버리는 것을 말한다.

두 번째 삼선법계는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는 것이며, 세 번째 삼중생계는 일체의 중생을 모두 받아들여 구제하는 것, 즉 자비심을 갖고 중생을 위해 전락하는 일체의 이타행위(利他行爲)를 말한다. **일용각대 불교학사·前 본지기자**

### 청정심으로 이타행하는 수행체계

# 내가 직접 만드는 나만의 108염주

나를 위해 만든 108염주의 공덕도 크지만 남을 위해 만든 공덕은 무량합니다. 시방법계에 부처님 법을 전하고 회향하는 큰 실천이 시작됩니다.

**본 수행은 다음과 같은 좋은 인연이 만들어 지게 됩니다.**

- ☞ 일심으로 참회의 절을 부처님께 올리며 그 정성이 담긴 한알 한알의 염주를 한번 절할 때마다 한 알씩 쬐어 자신의 마음을 밝히는 '108염주만들기' 수행은 몸과 마음을 바르게 하고 망상과 괴로움에서 벗어나고자 내입었던 길, 불자들이 중생을 모두 해탈의 길로 인도하겠다는 큰 서원은 아닐지

라도 정성스레 마음의 향을 사르며 그 동안 알게 모르게 지은 죄업을 참회하며 청정심 내어 달라고 부처님께 발원합니다.

- ☞ 그동안 자신의 안위만을 생각하며 살아왔던 삶을 '108염주만들기' 수행을 계기로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삶을 살겠다고 마음먹기 시작하고 108염주가 만들어지면 내가 아닌 다른 이의 목에 걸어 주겠다는 마음가짐을 다짐합니다.

- ☞ 이 인연을 통하여 시방법계에 회향하며 마지막 인내의 힘을 다해 절을 올리고 염주를 꿸 때 되면 염주는 멀고 공덕이 높아 든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108염주가 되는 것입니다.
- ☞ 본인 스스로 만든 염주를 부처님 앞에 일주일 또는 보름간 모신 후 가져가시면 더욱 불심이 돈독하게 됩니다.

**108염주 만들기 순서**

- 염주세트키트: 108염주 (10mm) 마감용 염주 1개(10mm) 종삼색, 코핀1개, 밴드, 이부시개
- 염주 하나하나를 줄에 끼웁니다. 가끔 구멍이 막힌 것은 염주는 준비물 중 이부시개로 해결합니다.
- 108개의 염주가 다 끼워졌으면 모자구멍이(3개) 양쪽으로 줄을 교차시켜 모아 줍니다.
- 수직으로 나와있는 모자의 구멍에 코핀을 이용하여 두개의 줄을 빼냅니다.
- 공부분까지 빼냈으면 3회 정도 한껏 매듭을 합니다. 매듭부분이 모자구멍으로 들어가게 합니다.
- 모자로부터 나온 두 줄을 마감용 염주로 통과시킵니다.
- 마감용 염주를 통과 시킨 두 줄에 밴드트를 끼워서 다시 마감용 염주로 통과시키면 됩니다.
- 이때 밴드트와 마감용 염주 사이에 3mm정도 남겨두고 모자의 마감용 염주 사이는 5mm정도 남겨둡니다.
- 두 줄로 2회 앞 뒤로 가볍게 매듭을 만듭니다.
- 다시 매듭을 3번 한껏 조이면 됩니다.
- 가위로 2mm정도 남겨두고, 자른 후 라이더로 살짝 지지서 손으로 가볍게 늘려줍니다.
- 108염주 완성  
심원스님특허출원 20-2011-0003692 20-2011-0004171 20-2011-0005656